

멀지만 가야만하는 청렴의 여정

안 도현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공부하기 바쁜 고등학생이다 보니 평소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하고 청렴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독후감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청렴 관련 수기들을 많이 읽어보고, 청렴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려보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난 평소에는 청렴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학생이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렴교육은 계속 받아왔었다. 매년 청렴 관련 글짓기 및 교육을 했었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청렴한 삶에 대해 쓰곤 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 마지막에는 항상 '저희 학교는 촌지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며 청렴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승의 날이나 선생님 생신이 되면 선물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진심을 담은 편지면 충분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던 몇몇 선생님들의 모습도 기억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청렴 관련 수기 중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어떻게 보면 반장이었던 글쓴이의 어린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에서, 선생님의 깨끗하고 청렴한 태도와 마음은 반장이었던 글쓴이뿐만 아니라 수기를 읽고 있던 나에게도 깊숙한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라서 그런지 유독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많았다. '보이지 않는 첫 마음'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지시를 무릅쓰고 정당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돋보였고, '참 잘 한 선택'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선생님을 신고한 한 아주머니의 용기를 잘 보여주었다. '부패한 당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배우세요.'에서는 글쓴이가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어른들에게 일침을 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을 통해 청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매일 함께하는, 각자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에 대한 수기도 풍부하였다. '위대한 유산'은 청심을 가훈으로 삼은 글쓴이의 아버지와 그 가훈을 이어받아 역시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글쓴이의 딸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수기가 있었지만, 특히 '이름을 들추고 들추었더니 그 안에 청렴한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이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다. 글쓴이의 남편이 자신이 맡은 일을 대충 하고 넘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모든 노력을 투자해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은 글쓴이와 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어느 언론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글쓰이의 남편 덕분에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내인 글쓰이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통해 청렴한 삶을 본 적이 많았다. 늦은 새벽, 지나다니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어쩔 수 없이 새치기를 하게 되면 꼭 손을 들어 뒤차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청렴을 느끼게 해주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부정부패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항상 권력을 지닌 검은 손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나쁜 세계로 유혹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청렴 보신탕'에서는 글쓰이의 당숙이, '다 가진 남자'에서는 글쓰이의 친구가 글쓰이에게 검은 손을 내밀기도 하였다.

글쓰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점과 결국 유혹의 손길을 내민 이들을 겸연쩍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에 변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거절해야한다는 확신을 주기도 하였다. 내가 거절함으로써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만 청렴해야 한다는 내 신념을 굳센 믿음으로 지키면 겸연쩍어 했던 글쓰이의 지인들처럼 내가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수기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혹의 순간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렴 관련 수기의 대다수가 이런 유혹의 순간들을 뿌리친 경험들이 많았다. '벚꽃 흐드러진 날에' 혹은 '최고의 처세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예들이 워낙 많다보니 나는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나도 곧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사회생활을 하며 끊임없는 검은 손의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눈앞에 보이는 쉬운 지름길을 두고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을 가야할 것이다.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빙 둘러 어렵게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 뒤쳐지고 청렴 관련 수기들의 주인공들처럼 조금은 느릴 수도 있다. '벚꽃이 흐드러진 날에'의 글쓰이는 벚꽃을 보러 온 인파로 인해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였고, 그 순간을 떠올리며 벚꽃을 보러 온 인파에 감사하며 뇌물을 주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매일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대신 남들보다 승진이 조금 느리고 더 낮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다. 더불어, '최고의 처세술'의 글쓰이는 힘든 취업난 끝에 취직한 회사의 편법을 알고 회의감을 느끼며 다시 힘든 취업난으로 뛰어든다.

나는 과연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청렴한 자세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자꾸 생긴다. 글쓴이들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수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많은 점들을 가슴에 새기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조금 느리게 갈지언정, 먼 훗날 내 삶의 마지막에 서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볼 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고,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 '재는 정말 바른 청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